



이번 협약을 통해 각 출연(연)은 기술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기술상담회 및 교류회를 실시하며, 이때 도출되는 기업 현장애로 및 기술수요 중 시급한 과제 혹은 단기해결이 가능한 사항 등을 청취하여 수요대응공동기술과제를 통해 해결에 나선다.

한편, 김강희 서울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“서울권 중소기업을 중견 및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애로기술지원, 플랫폼기술지원, 기술정보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올해 70여 개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을 받게 될 것” 이라고 기대했다.(끝)